

지역 소식통

정읍시, 무분별한 불법 옥외광고 근절 나서

정읍시가 불법 옥외광고물의 안전사고 예방과 실효성 있는 관리를 위해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정읍지역 양성과 대상 불법 간판은 3,402건으로 전체 간판의 73%에 달한다.

이에 시는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고 무단 설치하거나 연 장 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적 법하게 허가를 받아 광고할 수 있도록 양성과 사업을 추진한다.

자진신고 기간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 없이 사후 허가를 받거나 신고 등을 거처도록 유도함으로써 제도권 내로 흡수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상은 벽면 이용간판과 돌출 간판, 지주 이용간판, 옥상 간 판 등 4종류의 고정광고물이다.

자진신고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시청 도시 재생과에 자진신고해야 한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 현충일 추념 경보 사이렌 사전 점검 진행

부안군은 제87회 현충일 추념 등을 위해 묵념사이렌 실제발령을 대비한 민방위경보단발 교육과 함께 경보기 오작동 사전 점검을 진행한다

군은 오는 6월 6일 제87회 현충일을 추념해 국가를 위해 헌신·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의 명복을 기원하고 그 위훈을 기려 국민 애국심을 함양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당일 오전 10시부터 1분간 부안군 전역에 추모곡념 사이렌을 울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11일 읍면 경보담당자를 대상으로 묵념사이렌 실제발령을 대비한 민방위경보단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전북도 경보통제팀 담당주무관 주도로 경보사이렌 실제발령 절차 등을 교육했으며 각 경보담당자들은 철저한 사전 점검을 통해 경보기 오작동을 사전에 예방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기자

고창 식초 에이드, 반응 굿

탄산수 업제와 협업... 식초 에이드 음료 3종 시음행사 열어

'대한민국 식초문화도시' 전북 고창군이 청보리밭 축제장에서 다양한 식초 에이드 음료를 선보여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는 청보리밭 축제장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식초음료 소비확산과 식초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진행됐다.

다양한 식초 에이드 음료를 맛보기 위해 하루 500명 이상이 부스를 찾았고, 고창 농특산물 소평달인 높을고창 물과 연계한 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음료는 천연 탄산수 페리에와 모니

시럽 공식 수입원인 (주)커피앤케이(CNC)과 협업을 통해 3가지 맛으로 개발됐다. 고창의 복분자 발사미, 딸기 식초, 유청식초와 모니시럽에 페리에 천연 탄산수가 들어간 음료를 선보였다.

관광객들은 '탄산수와 얼음이 들어가 깔끔하고 시원한 느낌과 식초의 상큼한 맛이 더해져 맛있다', '음료의 색깔 맛이 훌륭하다', '건강에도 좋을 거 같다'라며 맛에 대한 좋은 평가와 호응도가 높았으며 식초제품 구입 문의도 꾸준히 이뤄졌다.

발효식초 음료는 다양한 효과가 있으며 초산과 유기산이 풍부해 간의 해독을 돕고 몸속의 노폐물과 나트륨을 배출하는 등 디톡스 효과와 피로해소, 부종 해결에도 효과가 있어 기능성 음료로서 건강에 관심있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메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접하여 고창 대표 디저트가 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식초 음료 상품화를 통해 고창이 식초 대중화와 식초시장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반드시 승리해 정읍 발전 견인"

이학수 민주 정읍시장 후보 등록... 선거운동 돌입

이학수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장 후보가 12일 오전 선관위에 정식후보 등록을 마치고 공식 후보로서의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등록을 마친 이 후보는 곧바로 선대위 관계자들과 동학농민혁명 당시 희생영령들의 위패를 모신 황토현전 적지 구민사를 찾아 참배하고 민주, 평등, 인권의 정신을 받들어 6.1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이 예비후보는 정읍시청 브리핑룸을 찾아 이미 예비후보 신분으로서 발표한 자신의 공약 80개를 재차 밝히면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며 "오직 시민과 함께 정읍 발전을 견인하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특히 이 후보는 자신의 공약을 육아와 청소년, 청년, 장년, 노인으로 구분된 세대별 정책 공약으로 소개하고 정읍제도와 정책추진 전략을 소개하며 준비된 후보임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이 후보는 이에 앞서 지난 11일 당조직과 시민과의 화합형 조직으로 재 희망 원팀, 이학수 정읍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새희망 원팀 선대위)를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새희망 원팀 선대위'는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 참여해 경쟁했던 후보를 포함한 지역 원로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통합형으로 구성되었다.

상임선대위원장은 강광 전 시장과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 이호춘 회장, 정읍농협 유남영 조합장 전북도의회



김철수 의원, 전북서남상공회의소 최종필 회장이 맡았고, 공동선대위원장에는 최민철(전 정읍시장 예비후보), 최도식(전 정읍시장 예비후보), 송길호(더불어민주당 정읍지역위원회 읍면동협의회 회장), 이동만(전 유성업의원 운영위원장), 오종태(전 정읍시청 국장), 김만수(전 정읍농협 산악회장), 김종길(정읍자연보호협회 회장), 정태호(전 생골농협 조합장), 이정기(전 정읍시 축협회장)를 위촉했다.

차급화 전 정읍시의회 의장과 이동진, 강태봉, 최준문 고문 등 당과 지역 의원들을 상임고문으로 강춘식, 고영섭, 김덕철, 이한욱, 오오근, 최병룡, 김석철, 조선례, 박우서, 김길수 대표 등 모두 30명을 고문으로 위촉했다.

또 후보의 직속으로 민생경제회복위원회와 미래세대위원회를 만들어 정책·대외협력·직능특별위원회와 특보단, 자원봉사단, 상황점검단도 만들어 담당들을 위촉했다.

또한 정책과 조직, 직능 홍보 시민소통, 노인, 여성, 청년, 유세, 유세지원 총 10개 본부를 만들어 담당을 배치하고, 상황실장에는 유신근 전 정읍시청 민원실장을 위촉했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 어업인 소득증대 수산종자 방류

관내 4개 어촌계 해역 일원 해심종자 64만미 방류

부안군은 전북도와 함께 2022년도 EEZ 공유수면 점·사용료 교부지원 사업으로 지난 11일 관내 4개 어촌계 해역 일원에 해심종자 약 64만미를 방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류행사는 군과 관내 4개 어촌계(격포·식도·왕등도·진리어촌계), 지역주민 등이 참석해 풍요로운 바다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진행했다.

행사에 참석한 어업인들은 '우리 바다는 우리가 지킨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수산자원 남획, 치어포획 금지, 불법어업 근절 등 수산자원 보호를 다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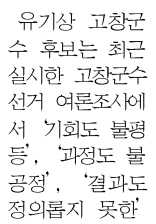
이호성 해양수산과장은 "어장의 환경변화 및 남획, 불법어업 등 수산자원의 급감으로 어업소득은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회유성

어종보다는 정착성 수산종자 방류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해 살기 좋은 어촌, 돌아오는 어촌, 정착하는 어촌 만들기를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업인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바다를 지키고 보호·보존하려는 참여의식으로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구축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유기상 고창군수 후보, '최근 여론조사 과정 불공정' 유감 표명



유기상 고창군수 후보는 최근 실시한 고창군수 선거 여론조사에서 기회도 불평등, '과정도 불공정',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여론조사였다고 생각하며 깊은 유감을 뜻을 전했다.

유 후보는 "과거 수백대의 유선전화를 개설 또는 휴대전화로 착신전환을 통한 여론조사 왜곡이 비일비재했고, 여론을 조작하여 올바른 민심을 나타내지 못한 불법적인 일들이 있었다"며 "최근 민주당 경선과정에 선거브로커 개인 탈법법적인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 주소 이전', '휴대전화 대량 개봉', '노인 휴대전화 수거 후 대리부

표' 등의 여론조작의 우려가 크다고 언론에서 지적 하고 있고, 경찰과 선관위에서 압수수색 등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지난 8일 실시된 여론조사 가 있기 며칠 전부터 상대측 지지자들의 SNS상 여론조사내 응답 홍보가 있었고 특히 하루 전날 내일과 모레 여론조사가 진행됩니다"라는 내용을 자기들끼리 공유하였다"고 전하며 "우리 사무실 관계자가 불공정한 여론조사 상황을 인지하여 그날 밤 SNS로 주변 지인들에게 '진짜 몰래 여론조사를 할까?' 라고 알렸고 그래서 야 해당 언론사 기자가 갑자기 연락이 왔다"고 알렸다.

이어 "이러한 일들이 한번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사과하고 더 이상 군민들을 우롱하지 마

라.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선거여론조사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진행이 되어야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만이 유권자가 후보자 선택에 있어 도움을 줄 수 있고 반면에, 잘못된 선거여론조사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다"고 말하며 "부디 금번 6.1 고창군수선거에서는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운' 방식의 선거전이 되기를 바라며, 상대편을 비방하기보다는 토론회 등을 통해 반칙과 변칙 없이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의 인물과 정책을 올바르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여론조사에서는 25%~35%의 격차로 유기상 후보가 뒤졌으나 개표결과는 3% 앞서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고창=김영식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 후보 "황단보도 턱 낮추기 정비 약속"



권익현 더불어민주당 부안군수 후보가 부안 관내 도로변에 설치돼 있는 황단보도 경계 턱을 낮춰 보행 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위해 황단보도 턱 낮추기 정비를 한번 더 권익현의 소화행 공약 10호로 발표했다.

권 후보는 행복한 부안 만들기 위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행하는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하고, 선제로 황단보도 턱이 높은 곳 20개소를 우선 정비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실제로 황단보도의 높은턱과 급경사면은 노약자, 장애인, 유아 및 휠체어, 실버카 등이 황단보도를 건널 때

이용에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권 후보는 보행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황단보도 턱을 2m이하로 낮추고 경사도를 완만하게 하는 정비사업과 함께 건물벽에 미설치된 보도위의 점자블록도 설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보도 위의 점자블록은 보도 위 나침반과 같은 길라잡이 역할을 해 시각 장애인들의 안전한 보행을 하려면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권익현 후보는 민선 7기에 약속한 반다비(장애인)체육관이 준공을 앞두고 있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볼링장도 2023년도에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권익현은 군민과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를 실천해 "메니페스트평가에서 4회 연속 최우수등급"을 받게됐다고 덧붙였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